

## 첨단 기기가 넘어서지 못하는 다양한 책의 용도

살부살조(殺父殺祖)  
혹은 책과 인간의 생존

글\_신동섭(출판기획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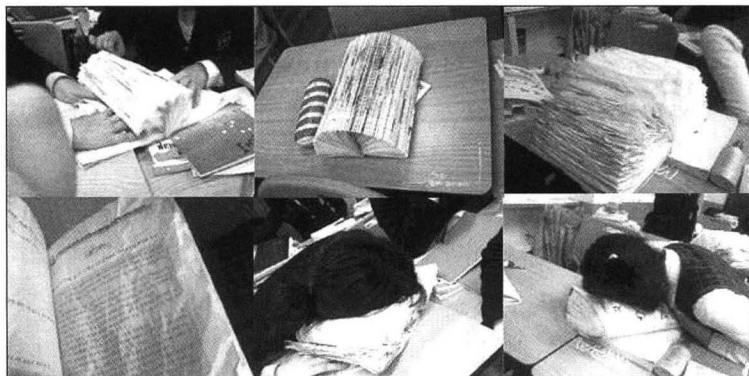
쇼펜하우어의 대표작 중에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가 있다. 이 책은 “이 세계는 진정한 실재가 아니라 단순한 주관적 표상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 세상은 생존, 즉 ‘살려고 하는 맹목적 의지’의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젊은 시절 이 책 때문에 머리에 쥐가 난 사람이 한둘이 아니겠지만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서문에는 어려운 책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들의 머리를 시원하게 해주는 내용도 있다.

“이제 나의 마지막 변명은, 책이란 읽지 않아도 여러 가지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 주는 것이다. 다른 많은 책들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서고의 빈틈을 메울 수 있을 것이며, 장정이 훌륭하다면 보기에도 좋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학식 있는 여자 친구의 화장대 위나 차 마시는 테이블 위에 놓아도 좋다. 혹은 마지막으로 이 책에 관해 비평을 쓸 수도 있다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최선의 용도이고 내가 특히 권하고 싶은 것이다.”

마지막에 ‘비평’ 대상으로 삼는다는 게 크게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가 책을 인테리어 소품, 액세서리 등으로 쓸 수 있다고 말했으니 우리 같은 범인들로서는 책의 용도 변경으로 느끼게 되는 부담이 크게 줄어든 셈이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볼거리가 넘쳐나는 시대에 하드웨어로서 책 혹은 몸으로서 책이 뛰어난 점은 경쟁 상대인 비디오, TV, 컴퓨터, PMP, 휴대폰보다 그 쓰임새가 다양하다는 점이다. 생각해보라. 어린이들이 TV로 탐 쌓기 놀이나 징검다리 놀이를 할 수 없을 것이다. 또 PMP나 휴대폰을 의자로 사용하는 것도 무리다. 물론 TV라면 가능하겠지만. 이들 경쟁 상대들은 뜨거운 냄비의 받침대가 될 수도 바퀴벌레를 때려잡는 도구도 될 수 없다.

베개로는 또 어떠한가. 연인과 밤늦게 대화를 나누다 핸드폰을 베고 잤다는 사람을 나는 아직 보지 못했다. 하지만 책은 그렇지 않다. 쇼펜하우어와 밤새도록 씨름을 하다 그 위에 침을 흘리며(?) 잘 수 있다. 이런 용도로의 책



▲ 한 여고생이 책으로 베개를 만드는 장면. 한 포털 사이트에 소개된 후 누리꾼들의 따라하기가 이어졌다.

은 평소 독자를 질리게 하는 두께가 한몫을 톡톡히 한다.

베개와 관련해 좀더 이야기를 하자면 언젠가 한 포털사이트에 책베개와 관련한 엽기 사진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이목을 주목을 받은 적이 있다. 한 여고생이 참고서를 아예 베개로 용도 변경해버린 사진이었다. 딱딱한 책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페이지 하나하나를 모두 구겨버리자 원래 볼륨이 3센티미터 정도였던 책은 20정도의 두께로 부풀어 올라있었다. 직접 따라해 보진 않았지만 쿠션도 만족할 만한 수준인 듯했다. 실제로 시중엔 천으로 만든 베개책이 나와 있기도 하다. 엄마와 떨어진다는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혼자서 쉽게 잠들지 못하는 유아들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

책의 용도로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예술작품의 훌륭한 소재가 된다는 것이다. 밀라노에 있는 밀라노 갤러리(www.galleriamilano.com)에서는 2006년 12월 12일에서 2007년 2월 10일까지 '투토리브리 Tuttolibri' 전시 열렸다고 한다. 조각, 사진, 회화, 비디오 및 설치 작품 등 지난 46년간 책을 활용해온 예술작품들을 선별한 전시였다.

리아 버진은 전시회를 소개한 글에서 "예술가는 자신의 영감에 따라 책을 변화시키거나 그 내용물을 지우고, 분할하거나 다시 잘라내고, 불에 그슬리거나 두 장의 납판 사이에 끼워 압착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책이라는 물리적 대상, 책이라는 관념, 책이라는 사고가 예술가에 의해 변형되어 미술관에 전시됨으로써(이러한 책이라면 미술관의 전시 품목이 되지 못할 이유가 없겠지요) 책의 본성이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참고와 이해의 대상에서 명상과 응시의 대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전시의 목적이 "미디어의 혁명 속에서 책이라는 오브제는 문화의 보존과 확산을 위한 완벽한 사물이자 가장 흥미로운 수단"이라는 사실 기억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그리고 보니 여고생이 만든 책베개를 함께 전시했어도 다른 작품들에 비해 그렇게 빠질 것 같지는 않다.

물론 책이 이롭고 창의적인 용도라면 쓰이는 것은 아니다. 책은 흥기 혹은 둔기로도 곧잘 사용된다. 요즘엔 그런 선생님들이 없으리라고 믿지만 한때 수업시간에 조는 학생들을 응징하는데 책만 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선생님들이 많은 시절도 있었다.

또 의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책의 용도라고 할 순 없겠지만 책은 참치캔 뚜껑까지는 아니어도 사람들에게 상처를 남기는 주범이 되기도 한다. 특히 어린이들에게 책은 자칫 치명적인 흥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책 만드는 사람은 잊지 말아야 한다. 2005년 소비자 보호원이 400여 명에게 설문한 결과 절반이 자녀가 책 때문에 다친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날카로운 부분에 베이고 찌히는 사고들이었다. 특히 당시 소보원이 직접 책을 사 조사한 결과 66권 가운데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된 경우는 단 한 권에 불과했다고 한다. 또 4권 가운데 3권에서는 폐지를 재활용할 때 쓰는 형광 증백제가 검출됐다. 책을 손을 만질 뿐 아니라 물기도 하는 어린이들에게 위험한 물질이다.

책의 쓰임새를 늘어놓자면 밑씻개부터 시작해 승배의 대상으로까지, 160페이지 <출판저널>을 다 채워도 부족하다. 하지만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책의 용도와 관련해 한번 곱씹어볼만한 한 질문을 던진 책이 있다.

국내에서 팬카페가 만들어졌을 정도로 대중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벨기에 출신의 여성작가 아멜리 노통브의 《불쏘시개》(1994, 열린책들, 함유선 옮김)란 책이다. 50대 남자인 교수와 30대 남자 조교인 다니엘, 그리고 20대 여자 학생인 마리나 이 세 명이 나누는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책의 초반부에 이런 대화가 나온다. 교수의 방에 난로가 꺼져 있는 것을 보고 마리나가 의아해하자 교수가 말한다.

교수 : 마리나, 나도 알고 있네. 이제 더 태울 게 없네.

마리나 : (서재를 바라보면서) 저건요?

교 수 : 선반은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네.

마리나 : 아니요, 책요.

어색한 침묵이 흐른다.

다니엘 : 그건 불쏘시개로 쓸 수 없지, 마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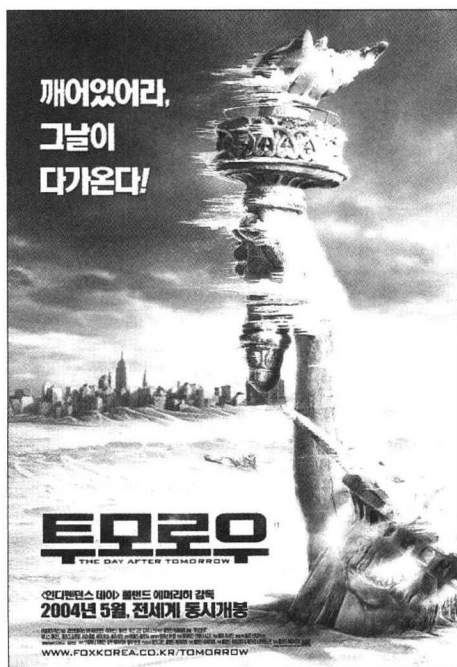
마리나 :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그렇긴 해. 하지만 책들은 아주 잘 타.

교 수 : 만일 우리가 책들을 태우기 시작하면, 그때 정말로 우린 전쟁에서 질지도 몰라.

마리나 : 우리는 이미 전쟁에서 졌어요.

(중략)

마리나 : 그러니까 선생님은 지금 제가 책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죠. 책을 불쏘시개로 쓰자고 했으니까. 저는 오히려 선생님이 책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은 언제나 책을 단순히 당신 논문을 쓰는 자료로만, 그러니까 당신이 한 단계 나아가는 도구로만 생각했을 뿐이니까요.



▲ 2004년에 개봉한 롤랜드 에머리히 감독의 <투모로우> 포스터. 도서관으로 피신한 주인공의 아들과 일행들은 도서관의 책을 태워 혹독한 추위에서 살아남는다.

전쟁 2년째 겨울, 밖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폭격으로 폐허가 되어 가고 있고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총알로 외출마져 쉽지 않다. 폭격으로 타다 남은 건축자재로 간신히 추위를 나고 있지만 그것마저 여의치 않다. 대학의 문학 담당 교수가 전쟁으로 잠잘 곳을 잃어버린 조교 다니엘과 그 여자 친구 마리나를 머물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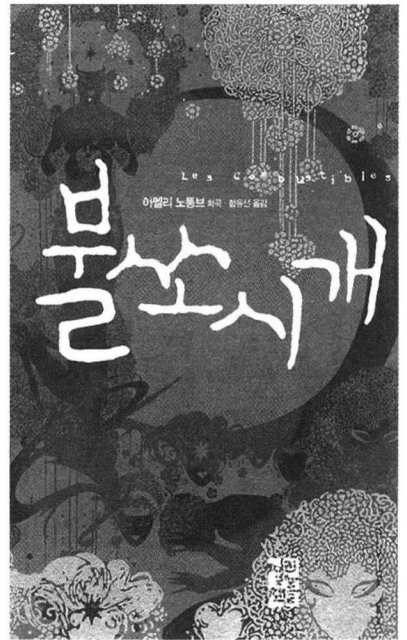
추위는 이들로 하여금 하루에 한 권씩 책을 불쏘시개로 사용하도록 하고, 마리나는 온기를 얻기 위해 늙은 교수와 동침을 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결국 마지막까지 아껴온 책 <천문대의 무도회>마저 불타자 마리나는 자살을 선택하고 만다. 전쟁과 같이 극단적인 상황에 책은 뿔감으로 그 가치가 전락하기도 하지만 책 속의 아름다운 문장은 참혹함을 견디는 힘이 된다고 아멜리에 노통브는 말하는 듯하다.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과연 어떤 책을 가장 먼저 태울 것인가? 과연 인류에게 책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2004년에 개봉한 롤랜드 에머리히 감독의 <투모로우>에서도 그대로 되풀이 된다. 이미 많은 사람이 봤겠지만 <투모로우>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엄청난 기상이변으로 지구 북반구 전체에 빙하기가 시작되는 상황을 그린 초대형 블록버스터 재난 영화다.

뉴욕이 물에 잠기고 토네이도가 도시를 집어삼키는 특수효과도 볼거리지만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장서를 자랑하는 뉴욕국립도서관에 피신한 주인공의 아들과 일행들이 책을 불태워 위기를 넘기는 장면은 <불쏘시개>와 겹쳐지며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문학 교수의 서재에서 마지막으로 불태워지는 책이 <천문대의 무도회>라는 가상의 책이라면 뉴욕국립도서관에서 불쏘시개로 열외 되는 책은 <구텐베르크 성서>다.

니체를 최고로 알고 있는 무신론자 사서는 이렇게 말한다. “이 구텐베르크 성경은 세계 최초의 인쇄물이야. 이성 시대를 오게 한 인류의 위대한 업적이지. 넌 비웃을지 모르지만 인간의 문명이 멸망하더라도 난 이것만큼은 지키고 싶어.”

경향신문 김중식 기자는 <필름에세이-책을 살리는 사람 사람을 살리는 책>라는 칼럼에서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야말로 지식과 신앙의 독과점 체제를 붕괴시켜 중세의 추위를 거뒀던 근대 이성·신앙의 햇살이라고 본 듯하다. (...) 인류 차원의 새로운 파트너십과 협력 관계의 모델로서 구텐베르크의 정신과 성서의 이타적 사랑을 내세운 형국이다”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 아멜리 노통브의 <불쏘시개>. 희곡 형식으로 된 이 책은 '인류에게 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 19세기 동양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만약 동양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구텐베르크보다 앞서 금속활자를 발명한 한국인이자, 전쟁이나 병하기는 아니지만 굶주림은 가난한 선비를 끊임없이 괴롭혔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것은 책뿐이었다. 정민은 <책 읽는 소리>에서 '책을 팔아 밥을 먹'은 선비들을 소개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조선 후기 서얼 출신의 실학자 이덕무가 이서구에게 보낸 짧은 편지글이다. 이 글은 고미숙의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에도 소개되어 있다.

“내 집에 좋은 물건이라곤 단지 <맹자> 일곱 편뿐인데, 오랜 굶주림을 견딜 길 없어 2백 전에 팔아 밥을 지어 배불리 먹었소. 희희낙락하며 영재 유득공에게 달려가 크게 뽐내었구려. 영재의 굶주림도 또한 벌써 오래였던지라, 내 말을 듣더니 그 자리에서 <좌씨전>을 팔아서 남은 돈으로 술을 받아 나를 마시게 하지 뭐요. 이 어찌 맹자가 몸소 밥을 지어 나를 먹여주고, 좌씨가 손수 술을 따라 내게 권하는 것과 무에 다르겠소. 이에 맹자와 좌씨를 한없이 칭송하였더라오. 그렇지만 우리들이 만약 해를 미치도록 이 두 책을 읽기만 했더라면 어찌 일찍이 조금의 굶주림인들 구할 수 있었겠소. 그래서 나는 겨우 알았소. 책 읽어 부귀를 구한다는 것은 모두 요행의 꾀일 뿐이니, 곧장 팔아치워 한 번 거나히 취하고 배불리 먹기를 도모하는 것이 박실樸實함이 될 뿐 거짓 꾸미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यो. 아아! 그대의 생각은 어떻소?”

정민의 말대로 책을 팔아 희희낙락하고 또 그 이야기를 듣고 책을 팔아 술을 사준 친구의 마음이 쉽게 가늠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영양실조로 죽고 누이도 그렇게 죽었음에도 식솔들을 거느릴 힘이 없었던 간서치(看書痴: 책만 보는 바보) 이덕무는 책을 통해서가 아니라 온몸으로 '겨우' 알았던 것이다. 굶주림에 못 이겨 책을 파는 것은 박실함이 될 뿐 거짓 꾸미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마다 달리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는 '살부살조(殺父殺祖: 중국 선승 마조(馬祖)는 목불(木佛)을 도끼로 때 아궁이에 집어넣은 채 따뜻하게 잠을 잤다)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요즘처럼 출간종수가 다양한 시대에 책의 용도를 따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이기도 한다. 누구에게는 천금 같은 책이 누구에게는 한낱 베개나 불쏘시개에 지날 수도 있다. 출판되고 난 후 특별한 사연을 겪은 책이 아니라면 돈만 지불하면 언제든지 살 수 있는 하나의 상품에 지나지 않는다. 책은 쓰임새가 다양해 TV나 컴퓨터보다 낫다고 말하는 것도 억지에 가깝다.

다만 좋은 책은 애초의 출간 목적에 가장 부합할 때 그 빛을 발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킬링타임용이라면 킬링타임용으로 충실하면 된다. 아무리 좋은 책을 많은 책을 읽은 들 그뿐이라면 그 시간에 아이와 함께 놀아주고 아내 대신 저녁을 준비하는 것만 못할 것이다. **한글**